

거친 일터서 好況이룩한 女社長

天馬콘크리트代表 沈桂鎮씨

가난포게만 보이는 여자의 몸으로 1백명의 여성납자손들을 이끌어가는 여사장 沈桂鎮씨(49) 서울江南구細谷동 天馬콘크리트(주) 대표

88.4.1



인 沈씨는 국내에 1백명만 있는 여성경영인중에서도 다 소「텔스킨」업종 때문에 유난히 관심을 끈다.

레이콘車로 공사장에 콘크리트를 만들어 공급하는 이 회사는 비록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규모이지만 레이콘

車만 50대를 갖춘, 이 업종에서는 탄탄한 기업으로 꼽힌다.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沈씨가 기업경영에 뛰어들어 지난 84년 6월만에 不治의 병으로 세상을 뜨고서부터다.

직원에 누님같이 어머니같이 대해

勞使분규없어...業界 선망대상이므로

『술한 역정을 듣고 화사를 설립한 그분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』

당시 고교생이던 아들하

나만을 둔 沈씨는 열심히 살

다간 남편의 「명령」을 위해 경영자로 변신, 남부럽지 않은 회사로 키워냈다.

시작 당시 60명에 못미치던 종업원이 지금은 98명으로

늘어났고 年産 30만 입방m(우베)의 콘크리트를 배합, 생산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. 초창기의 「열정」기만했던 것은 행보도 거의 다 잦았다.

이 사업이 율령과 特需가 있는 데다 공장부근이 신개발지

역이라는 지리적인 이점도 있

어 생산설비를 몇 년째 몰가 동하는 호황을 누리고 있

다.

沈사장이 내세우는 경영철

학은 철저한 「溫情家族주의」. 나지도 경영을 잘모르겠다는

沈사장이지만 여성들유의 부

질문이 지키지... 이를 위해 자신이 주축이 돼 산악회를 구성하고 매달 한번씩은 직원들과 함께 산에 오른다. 또 점심식사는 반드시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먹고 있다.

직원들도 「평창」히 엄하지 만 마치 누나나 어머니를 대 하듯 포근함을 느낀다.「고맙 한다. 대우도 중소기업이로서 는 가장 후한편이어서 업계 조합에 나가면 동료업자들을 부터「얼마나 많이 벌겠래...」 라는 농적인 지탄을 받기도 한다고.

그런뿐이지 지난해 노사분 규 때도 직원들이 전혀 동요 를 보이지 않아 고마왔다고 沈사장은 말한다. 여절보다는 주위에서 만나 는 「동네아줌마」의 풍모를 가 지고 있는 沈씨는 「어울리기 위 해」가끔 골동품을 들르는 제 외에는 특별한 취미는 없다. 희망이 있다면 심신장애자에 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고 싶은 것.